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못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못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못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못다

한눈에 보는 기록

못
'다 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요약 연대표

표기	16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표기					
못다					
못다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다 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 문헌의 첫 기록

16세기

📖 수록 용례

10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7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못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다 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 못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못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몰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못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몰다
16세기18세기
- 못다
18세기19세기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몰다, 못다



못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못다’의 옛말인 ‘몰다’는 16세기부터 나타난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에 나타나는 ‘몰-’과 ‘못-’은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19세기 이후에는 ‘못-’으로만 쓰이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못다

전체 용례 10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6세기 몰다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몰다

출처 1579 삼강행실도 동경대본 효자도:18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문득 대жат 기릿 고기 어름 우희 소사나거늘 가져다가 이바드니 여러 날 못다 먹거 그저기하 제 아들 궂티 후더라.

역 현대어 풀이

문득 대자 길이의 고기 얼음 위에 솟아나거늘 가져다가 봉양하니 여러 날 못다 먹어 그때야 제 아들같이 하더라.

18세기 못다, 못다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못다, 못다

출처 1762 지장경언해 상:6ㄱ

용례 02

66 문헌 용례

부테 문슈스리드려 니르샤디 내 불안으로 보아도 오히려 못다 헤노니.

역 현대어 풀이

부처가 문수사리에게 이르시되 내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오히려 못다 헤아리니.

출처 1762 지장경언해 상:22ㄱ

용례 03

66 문헌 용례

디장보살이 성모의 소로샤디 무간디옥을 더기 니르건대 이 곳거니와 너비 니을 댜디옥죄돌히 일흠과 여러 가딛 슈고엿 일올 일겁 둥에 못다 니르리다.

역 현대어 풀이

지장보살이 성모께 사뢰시되 무간지옥을 적게 이르건데 이 같거니와 너비 이을 전지옥죄들이 이름과 여러 가지 수 고의 일을 일겁 중에 못다 이를 것이다.

출처 18세기 후반 일동장유가 1:9ㄱ

용례 04

66 문헌 용례

주종이와 신주익이 먼니 와 기다리니 정담을 못다 후야 상방의셔 부르거늘.

現代어 풀이

자종이와 신자익이 멀리 와 기다리니 정담을 못다 하여 사방에서 부르거늘.

19세기 못다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못다

출처 1876 가곡원류 39

용례 05

66 문헌 용례

간밤에 부든 바람에 눈서리 티단 말가 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후물며 못다 핀 꽃치야
닐너 무슴 후리요.

現代어 풀이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 말인가 낙락장송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엇하리오.

출처 1898 제국신문 10월 10일 제51호 3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무릇 신등의 후고저 후는 말을 상소에 못다 한 조건을 맛당히 도도히 알외올 터이오니.

現代어 풀이

무릇 신등의 하고자 하는 말을 상소에 못다 한 조건을 마땅히 조조히 아뢰올 터이오니.

출처 1899-11-22-수 제국신문 제2권 제262호:2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어젯날에 취한 술이 못다 싸여 정신이 몽롱한대.

현대어 풀이

어젯날에 취한 술이 못다 깨여 정신이 몽롱한데.

20세기 못다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못다

출처 1908 구마검 4

용례 08

66 문헌 용례

그 귀신은 독갑이도 안이오 두억신이도 안이오 못다 먹고 못다 쓰고 함씨 집에 인연이 미진하야 원통히 세상 버린 초취부인 리씨와 지취부인 박씨라.

현대어 풀이

그 귀신은 도깨비도 아니요 두억시니도 아니요 못다 먹고 못다 쓰고 함씨 집에 인연이 미진하여 원통히 세상 버린 초취부인 이씨와 재취부인 박씨라.

출처 1912 화중화 15

용례 09

66 문헌 용례

불과 일 년이 못다 지나 부치(負債)가 여산(如山)이라.

현대어 풀이

불과 일 년이 못다 지나 부채가 여산이라.

66 문헌 용례

우리가 권 진수님의 퇴산 갇튼 덕택을 입은 싱각을 후면 머리를 버혀 신을 삼아도 못다 갇흘 터인디.

원) 현대어 풀이

우리가 권 진수님의 퇴산 같은 덕택을 입은 생각을 하면 머리를 베어 신을 삼아도 못다 갇을 터인데.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못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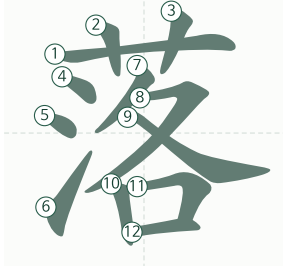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못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1 / 2 · 7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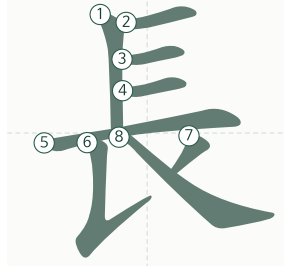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落 뜻·음 떨어질 락
총 13획 · 부수 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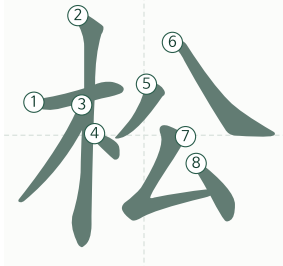
사전 13획 · 획순 그림 12획
hanja.wordrow.kr/한자/落/

長 뜻·음 긴 장
총 8획 · 부수 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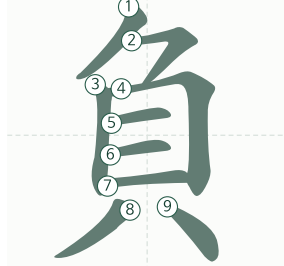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長/

松 뜻·음 소나무 송
총 8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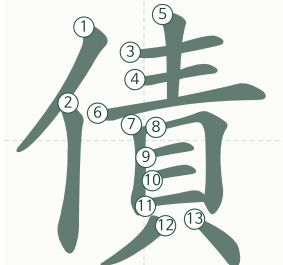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松/

負 뜻·음 질[荷] 부
총 9획 · 부수 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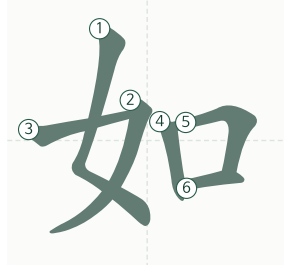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負/

債 뜻·음 빚 채
총 13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債/

如 뜻·음 같을 여
총 6획 · 부수 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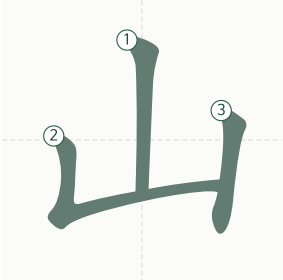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如/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山

뜻·음 메 산
총 3획 · 부수 山



hanja.wordrow.kr/한자/山/